



황혼의 우정과 사랑에 비친 생의 희노애락

연극 '언덕을 넘어서 가자'
제주문화예술진흥원 초청
이달 28일 문예회관 두 차례
원로 최종원과 제주 배우 호흡



지난달 한라아트홀에서 공연된 극단 가람의 '언덕을 넘어서 가자'. 원로 배우 최종원과 제주 배우들이 호흡을 맞췄다.

'최종원의 제주 첫사랑 사수기'란 홍보 문구를 내걸고 지난 연말 제주 무대에 처음 선보였던 극단 가람의 '언덕을 넘어서 가자'가 새해 제주도문화예술진흥원 초청으로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앙코르 공연을 갖는다. 이달 28일 오후 4시와 7시 두 차례다.

'언덕을 넘어서 가자'는 이만희 원작을 바탕으로 극단 가람의 이상웅 대표가 연출을 맡았다. 지난달 16~26일 한라아트홀에서 15회에 걸

쳐 공연되는 동안 입소문을 타며 관객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이 작품은 영화와 드라마, 연극을 오가며 오랜 활동을 펼쳐온 원로 배우 최종원과 제주 베테랑 연

극인들이 호흡을 맞췄다. 이들의 연기를 통해 70세를 바라보는 초등학교 동창들의 우정과 사랑, 오해로 인한 애증을 서글프고도 희망차게 담는다. 현재 제주에 머물며 '제

주살이'를 하고 있는 최종원이 철없고 능청스러운 자원으로 나온다. 가람의 배우 이동훈은 무뚝뚝하고 통명스럽지만 첫사랑 앞에서는 수줍은 청년이 되는 완애, 김금희는 두 남자의 첫사랑 다헤로 각각 등장한다.

제주 연극으로 새해 첫 기획 공연 무대를 준비한 도문화예술진흥원의 부재호 원장은 "확박한 삶을 견디며 살아가는 노인들의 우정과 사랑, 그리움을 그려낸 이번 작품을 통해 인생의 희노애락과 삶의 가치를 느끼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관람료 무료. 입장권은 이달 17일 오전 9시부터 도문화예술진흥원 예매시스템(www.eticketjeju.co.kr)으로 선착순 예약을 받는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공연이다. 전선희기자

로컬 브랜드 '한림수직' 재생 프로젝트

전쟁 이후 경제적 자립 목적
1959년부터 2005년까지 운영
생태적 가치 복원 의미 더해
성이시돌센터서 결과물 전시



성이시돌센터에서 진행 중인 '한림수직-되살아난 제주의 기억' 전시 장면.

제주 사람들에게 친숙한 '한림수직'이 온기를 더한 브랜드로 살아났다. 제주 기반 콘텐츠그룹 제주상회, 친환경 패션 제조·유통 전문 사회적 기업인 아트임팩트, 제주 농촌 지역의 발전과 지역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이시돌농촌산업개발협회가 함께하는 '한림수직 재생 프로젝트'다.

한림수직은 1954년 아일랜드에서 부임해 온 맥그린치 신부(1928~2018)에 의해 시작된 니트 직조 브랜드다. 제주 4·3과 6·25 전쟁을 겪으며 곤궁한 삶을 이어가야 했던 제주 사람들이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업이었다. 성이시돌목장에서 기른 양들의 털을 이용해 스웨터, 카디건, 머플러, 담요 등을 만들며 1959년부터 2005년까지 운영됐다.

이번 한림수직 재생 프로젝트는 제주의 지속가능한 삶을 제안하며 기획됐다. 제주에서 버려지는 자원을 활용해 예전 한림수직의 가치를 되살리는 작업에 나섰고 리브랜딩 단계를 거쳐 약 1000개의 상품을 제작한 뒤 지난해 11월 10일 크라

우드 펀딩을 통해 선보였다. 이 과정에 540명의 후원자를 모집하고 펀딩으로만 8265만원을 판매했다. 12월에는 서울 성수동에서 약 한 달간 팝업 전시를 진행했다.

제주에서도 지난 6일부터 성이시돌센터에서 '한림수직-되살아난 제주의 기억'이란 이름으로 그 결과물을 공개하고 있다. 제주의 오리지널 로컬 브랜드를 떠올리며 단순히 옛 제품의 구현을 넘어 한림수직이 주목했던 경제적 자립에 생태적 가치의 복원이라는 의미를 더해 재생한 로컬 브랜드 이야기를 전하는 자리다. 전시는 이달 30일까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문을 연다. 전선희기자

제주문화관 '창작공간' 3월부터 가동

예비작가 포함 총 40명
전 장르 걸쳐 전국 공모
2개월씩 제공 5기 운영

지난해 10월 제주시 도남동에 문을 연 제주도립 제주문화관이 올해부터 3층 '창작공간'을 본격 운영한다. 2개월씩 머물며 집필에 전념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전국의 기성작가는 물론 예비 작가들을 대상으로 한다. 시(시조), 소설, 수필, 평론, 희곡, 아

동·청소년 문학 등 모든 문학 장르 작가에게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기성작가는 신춘문예·문학 전문지 등을 통해 등단하거나 작품집을 내놓은 사람으로 2020년 이후 발간 실적이 있는 자를 우대한다. 예비 작가의 경우 별도의 활동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2022년 작품 발표와 출판 계획이 있는 자를 우대한다.

운영 기간은 1기(3월 2일~4월 30일), 2기(5월 3일~6월 30일), 3기(7월 2일~8월 30일), 4기(9월 1일~10월 30일), 5기(11월 1일~12월 30일)로 나뉜다. 각 기별 8명씩 총 40



지난해 10월 문을 연 제주도립 제주문화관.

명을 모집한다.

선발된 사람의 창작공간 사용료는 전액 무료다. 다만 체재비, 교통비, 식비 등 부대비용은 지원되지

않는다. 접수기간은 1월 17일부터 2월 11일 오후 6시까지로 제주문화관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전선희기자

원도심에 입힌 광해군 이야기 둘째·넷째 토요일 걷기 투어

제주에서 유배생활을 했던 광해군 이야기가 원도심의 새로운 콘텐츠로 탄생했다. 제주작한여행이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에 진행하는 '광해, 빛의 길을 걷다' 프로그램

이다.

이 프로그램은 제주대 스토리텔링연구개발센터의 자문과 제주도 시재생지원센터의 총괄 아래 만들어졌다. 걷기 투어를 통해 제주다움과 광해군의 드라마틱한 삶을 만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걷기 코스는 '세자의 길', '왕의 길', '유배의 길', '빛의 길'로 각

각 이름 붙였다. 이 길은 고씨주택-산지전-탐라문화광장-철성로-동문시장-제이각-제주읍성-오현단-광해 적소터 표지석-여행자라운지-향사당-문화예술의 거리-간옹이 의 적소터 표지석-목관아 앞-관덕

이에 맞춰 원도심 상가들이 참여하는 먹거리와 체험거리, 기념품도

준비했다. 광해 행찬(임금님 나들이 음식)과 광해 소반(임금께 올리는 두 번째 작은 상차림), 광해 기념품,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고증을 거쳐 상가의 특성에 맞게 운영한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작한여행 홈페이지(www.jejuoodtravel.com) 참고.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문화예술지원 1차 공모 5개 유형 총 701건 접수

2022년 제주문화예술지원사업 1차 공모 결과 5개 유형에 총 701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지난 13일 마감된 접수 현황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1차 공모 응모 건수는 유형별로 문학작품집발간지원 103건, 예술창작활동지원 494건, 장애예술인창작활동지원 22건, 우수창작활동지원 76건, 공공예술지원(신설) 6건이다. 2021년 지원사업 1차 공모 신청 대비 신청 건수가 28건 증가했

고, 신청 금액은 17억 8000만원 감소했다.

이번 5개 유형의 지원 예정 금액은 23억으로 전년도 대비 1억 6000만원이 늘었다. 지원 예정 사업 건수는 376건으로 전년도 대비 약 50건의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최종 심의 결과는 2월 말 발표된다.

한편 2차 공모사업은 제주원으로 예술인회고지원, 문화예술연구 및 비평지원, 창작역량강화지원,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예술공간지원, 국제예술교류지원 유형에 걸쳐 접수가 이뤄진다. 이달 17일 제주문화예술재단 누리집에 공고 예정이다. 전선희기자

승 **축** 진
CONGRATULATIONS
서기관



김태종

서기관(제주특별자치도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장)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어음2리민 일동

승 **축** 진
CONGRATULATIONS
서기관



김태종

서기관(제주특별자치도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장)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나공회 회원 일동

승 **축** 진
CONGRATULATIONS
서기관



김태종

서기관(제주특별자치도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장)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형제일동

승 **축** 진
CONGRATULATIONS
경무관



고평기

(부친원미경찰서장)
(부: (故)고이연 · 모: (故)강춘향)

경무관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매형 현승중 · 작은누나 고순희